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전주매일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음 1월 27일) 제175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열악한 청년고용 희망의 싹 틔운다

장기근속 지원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 정부 미지원 부분 보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K-Move 스쿨도 지속 추진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등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전반의 일자리 창출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도내 50인미만 중소기업이 92.6%를 차지하는 산업기반의 영향으로 청년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취업 등으로 타 지역 청년유출,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와 맞물리면서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기업 생산성 저하와 채용규모 감소, 지역의 활력까지 떨어뜨림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도내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전북도'를 목표로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도내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와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은 부분을 전북도에서 보완해 새로운 방식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내 대학생 취업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한 고용부 공모사업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및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스쿨)에 선정돼 국비 17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9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대학에 군산대가 추가로 공모 선정됐으며, 2015년 전주대, 2016년 원광대가 각각 선정돼 도내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어려운 국내 취업의 한계를 벗어나 해외취업의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해외취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 스쿨)'도 지속 추진한다.

전북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방안으로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 청년 취업연계 강화, 직업능력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및 개발 등 4개 분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경제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도정 3대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의 젊은 농업 일자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 일자리, 탄소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지방공기업 및 도 출연기관의 청년 의무채용,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미스매치와 양극화 문제, 계층 간 일자리 갈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 분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일자리 창출성과는 6,610명이며, 올해는 67개 사업을 중심으로 7,200명 창출을 위해 580억원을 투입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발굴,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형설지공의 기쁨,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전북대학교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2일 오전 10시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한 졸업생이 재학생들로부터 헹가래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속보〉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 오후 2시로 연기… 내달 13일 이전 심판 의지 변함없어

무주·진안 임대주택 지어 주거여건 개선

임실·장수에 이어… 도, 진안군·무주군·전개공과 협약

도내 농어촌지역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을 통한 정주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북도, 진안군, 무주군, 전북개발공사가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22일 도청에서 송하진 지사와 이항로 진안군수, 황정수 무주군수,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임대주택 2단계사업을 위한 협약식이 개최됐다.

농어촌지역은 주택노후화와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더욱 필요함에도 기업에서 사업성 저하 등으로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전북개발공사가 상호 협력해 직접 건설·공급함으로서 도.농간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임대주택은 지난 2015년에 장수군과 임실군이 1단계사업 협약이 체결돼 사업승인 완료후 올 3월에 착공 예정중에 있으며, 금번 2단계사업 협약체결을 통해 진안 110세대, 무주군 50세대, 총 160세대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회수재원을 전북개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해 임대주택 사업비를 지원하며, 진안군과 무주군은 사업후보지 선정시 제안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게 되고, 전북개발공사는 용지매입, 임대주택건설 및 운영 등을 담당함으로서 기관별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농어촌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선6기 전북발전의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사람찾는 농촌-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의 밑거름이 돼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항로 진안군수 및 황정수 무주군수는 "농어촌 임대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질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추진하는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장수·임실군에 이어 진안·무주군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도.농 균형발전 및 서민주거안정에 앞장서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전주시, 시민불편 해소 나서

전주·완주시내버스 노선이 시민들의 교통수요와 이동패턴 등 실생활에 맞춰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가운데, 전주시가 노선개편 조기 정착과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는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1달간 시내버스타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전주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출·퇴근 및 관내출장시 주 2회 이상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시내버스 이용 및 노선개편에 따른 불편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또 매주 금요일 현안회의에서 시내버스 탑승 현장체험담을 함께 공유하고,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점진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도 매주 2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